



기획시리즈



임경빈
전 서울대 교수

조경수목산책 (Ⅱ X I)

— 벽오동나무 —

1. 벽오동나무와 오동나무

'오동'이란 명칭을 동반하는 나무에는 '오동나무' 말고도 참오동나무, 개오동나무, 벽오동나무 등이 있다. 오동나무(梧桐)와 참오동나무(白桐)는 같은 과(科)에 속해서 여러 형질이 유사하다. 오동나무는 잎 뒤에 갈색 털이 나고 참오동나무 잎 뒷면에는 흰 털이 나 있다. 또 참오동나무의 꽃에는 자주색갈의 줄이 나 있어서 꽃으로 서로 구별이 된다. 그러나 잎 뒤의 털색깔은 변화가 심해서 두 수종을 식별하는 근거로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벽오동나무는 그 열매와 꽃의 생김새 등이 오동나무류와 크게 다르고 줄기의 껍질도 푸르고 얇아서 뚜렷이 구별이 된다. 개오동



▶ 아름다운 참오동나무. 독일 프라이부르크



▲미끈한 벽오동의 줄기. 이리농고 구내. 1988. 10

나무 꽃의 모습은 오동나무에 가까운 듯하나 열매의 모습이 크게 다르다. 개오동나무의 열매는 가늘고 길어서 길이가 20~40cm에 이른다. 벽오동나무와 개오동나무는 원래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도입된 나무들이다. 개오동은 중국원산이고 벽오동나무는 대만, 중국의 따뜻한 남쪽지방이 원산지이다.

잎이 넓고 큼직하면 그것이 오동나무 잎의 속성에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러한 나무에 옛적 사람

들은 즐겨 동(桐)자를 붙이곤 했다. 가령 오동나무를 의동(椅桐), 엄나무에 자동(刺桐), 예덕나무에 야동(野桐), 남쪽에 자라는 유동(油桐, 기름 짜는 오동나무) 그리고 벽오동(碧梧桐)이 그러하다. 상록활엽관목인 돈나무는 남쪽 바닷가에 나는데 해동화(海桐花)라 해서 동(桐)자가 들어가고 있다.

오동(梧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오동은 동(桐)과는 다르다는 내용이 중국의

명저 본초강목에 설명되고 있다. 즉 말하기를 '오동(梧桐)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벽오동나무를 말하고 동(桐)에 닮아 있으나 껍질은 푸르고 거칠지 않으며 나무에 마디가 없고 줄기는 곧게 올라 간다'라고 했다. 목리(木理)는 가늘고 목질은 치밀하다. 잎은 동(桐)에 닮아 있으나 크기가 약간 작다. 꽃의 수술은 가늘다. 열매의 길이는 10cm 쯤 되고 다섯 조각으로 되어 있다. 열매가 성숙하면 갈라져서 키(箕) 비슷한 모양의 조각으로 된다(사진 참조). 종자는 이 조각의 가장자리에 2~6개 쯤 달린다. 크기는 작은 콩알만 하고 껍질에 주름이 있고 먹을 수 있다. 벽오동은 늦봄에 잎이 나타나고 초가을에 떨어진다. 자람이 빠르고 새가 종자를 입에 물고 각지에 전파시킨다. 산지의 돌 사이에 난 벽오동나무의 목재로 악기를 만들면 특히 그 음향이 뛰어나게 아름답다고 한다. 옛적에 말하기를 봉황새는 벽오동 나무에 거처한다고 하는데 이 열매도 먹고 살아간 건가? 둔갑서(遁甲書: 음양술수를 바탕으로 하는 병법서적)에 보면 벽오동은 해와 달의 정운(正潤, 윤달이 들고 안 들고 하는 것)을 안다고 한다. 벽오동은 잎이 열 두 개씩 달리는데 아래로부터 헤아려서 한 장을 한 달로 하고 맨 위쪽의 잎은 12월에 해당한다. 윤달이 들어 있는 해에는 잎이 13장 달리게 된다. 13장 중 작은 잎이 윤달에 해당하므로 관



▲벽오동나무의 잎. 전북 익산시, 1988. 7. 17

찰에 의해서 어느 달이 윤달인지
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입추(立秋)
날 즉 가을로 접어드는 날이
오면 잎 한 장이 푹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그 시각이 바로 가을이
시작되는 순간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벽오동나무
잎 한 장 떨어져서 온 세상이 가
을이 되었음을 안다』라고 했다.
한방에 있어서 환약을 만들 때 그
크기를 벽오동 종자크기로 한다
는 기준이 민간에 전해지고 있다.

이상이 본초강목에 설명되어
있는 벽오동의 내용이고 동(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동나무)
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다. 동은 아
침 햇빛을 받는 곳에 심는 것이
좋다. 종자로 자란 것은 한 해에
1~1.2m 쯤 자라고 뿌리묘로 자
란 것은 1.5~2.0m 쯤으로 된다.
잎은 부드럽고 털이 있으며 자람
이 무척 빠르다. 잎이 나타나기

전에 꽃이 피는데 꽃 안쪽은 약간
붉은 색을 띤다. 열매는 굵은 대
추만하고 그 안에 두 개의 방이
있는데 방 안에는 살이 있고 살
위에 얇은 조각으로 된 종자가 있
다. 가늘고, 가볍고, 날개를 달고
있다. 열매가 성숙하면 갈라지고
종자는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
아간다. 거문고 등 악기를 만들면
좋고 기타 가구재, 옷장 등을 만
들면 벌레가 먹지 않고 좋다.

어린 딸이 있는 집에서는 이 나
무를 심을 만하다. 그것은 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아이가 커서 시
집갈 때 쫓으면 끊어서 옷장을 만
들 수 있는 크기에 이르게 되는
까닭이다.

이처럼 본초강목에는 벽오동과
오동에 대한 설명이 과학적으로
또 흥미롭게 되어 있다.

2 가을, 비, 수심과 벽오동나무

벽오동나무는 나무의 성격상
가을과 달 또는 비와 어울리고 있
다. 가을을 알리는 벽오동나무의
생리가 그러하고 크고 넓은 잎은
빗방울을 받아 내려 붙는 에너지
를 음향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
음향은 투닥투닥하는 리듬이라도
좋고 주룩주룩하는 액체적 음향
이라도 좋다. 더욱이 스산한 가을
밤 창호지 문짝을 통해서 듣는 빗
소리의 증폭이라도 좋다. 벽오동
잎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황홀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나무가 연출해내는
독특한 효용가치라고 할 수 있다.
옛 시에 『벽오동나무에 가는 비
뿌리고 황혼이 되자 투닥투닥 주
룩주룩 소리내는 것이 한량없이
스산하구나』 하는 것이 있다.

梧桐更兼細雨 오동경겸세우
倒黃昏 도황혼
點點滴滴 점점적적

그 뿐만 아니라 벽오동나무의
잎은 내리는 빗줄기와 어울려서
우리의 눈에 예술의 경지를 자아
내게 한다. 빗방울을 맞으면서 내
는 소리는 단조로운 것이 아니고
윙동적이지만 깊은 고요를 그 안
에 담고 있다.

『한 밤중에 내리는 비를 벽오동
나무 잎에 붙여 그 정도를 짐작하
노라』하는 문장은 한없이 우리의



▲벽오동의 잎과 꽃. 전북 익산시 1988. 7. 17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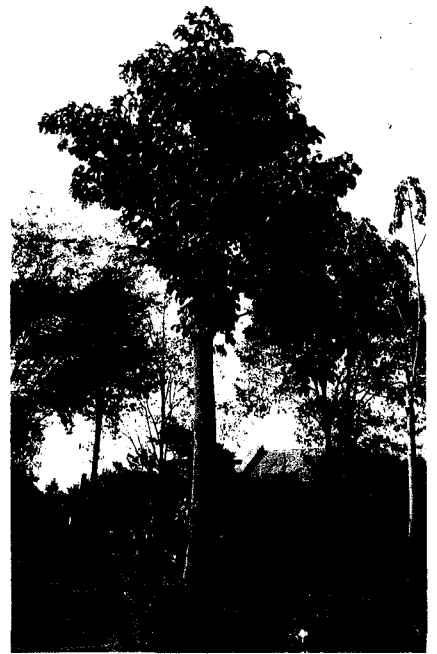
이처럼 시와 문장에 오르는 벽오동나무의 상징은 고요와 성숙 그리고 냉철과 철학같은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풍성이라든가 화려라든가 굳셈이라든가 하는 것보다는 영락(零落)이라든가 소탈(疎脫)이라든가 적막(寂漠)이라든가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

이러한 분위기를 읊은 중당(中唐)의 시인 맹교(孟郊)의 추회(秋懷) 시가 있다. 8세기 후반을 살아온 그는 성격이 잘못과는 타협하지 못하고 꼬장꼬장하였기 때문에 관리노릇하는 데에는 알맞지 못했고 그래서 그의 생활은 넉

넉한 것이 못 되었다. 그래서 그의 시는 날카로운 호소력을 가졌으며 그것은 오로지 그의 가난한 생활에서 우러러 나온 것이라 한다. 추회의 시에 벽오동나무가 등장해서 그의 시상에 참여하고 있다. 추려서 소개한다.

가을 달의 얼굴은 얼어붙고
 늙은 나그네의 마음 고독하다
 찬 이슬은 꿈에 떨어져
 깨어지고
 모진 바람은 뼈를 깎아 차다.
 벽오동은 잎을 떨군 채 서 있고
 바람 소리는 슬픈 음악처럼
 들린다.

秋月顔色氷 추월안색빙



▲전형적인 벽오동의 수형. 이리농고 구내. 1988. 11



老客志氣單 노객지기단
 冷露滴夢破 냉로적몽파
 峭風梳骨寒 초풍소골한
 梧桐枯嶢嶢 오동고쟁영
 成響如哀彈 성향여애탄

〈참고〉 쟡영(嶢嶢) : 산이
 가파르게 서 있는 모양

이 때 벽오동은 가을, 찬 바람,
 늙음, 슬픈 음악, 가난함에 둘러
 싸여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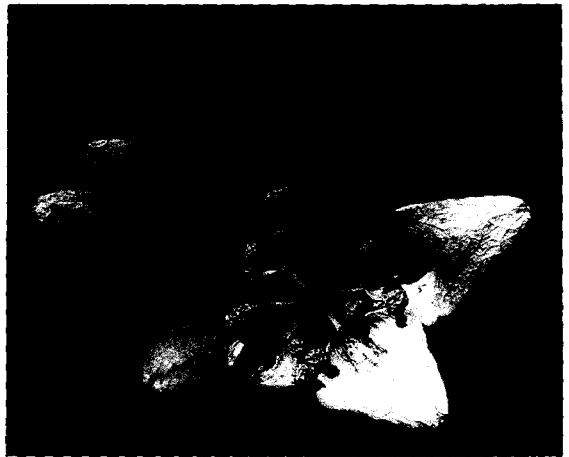
그러나 벽오동은 항상 이러한
 분위기에만 젖어 있는 것도 아니
 다. 중국 남조(南朝) 시대의 가요
 자야(子夜, 여자의 이름)의 노래
 끝 쪽에 다음이 있다.

당신은 마음씨 고와서
 우리 마을로 옮겨왔지
 문간에 벽오동 있어
 나갈 때 들어올 때
 열매를 보노라

憐歡如情懷 연환여정회
 移居作鄉里 이거작향리
 桐樹生門前 동수생문전
 出入見梧子 출입견오자

〈참고〉 연환(憐歡) : 사랑하는
 사람, 향리(鄉里) : 동향의 사람,
 오자(梧子) : 벽오동의 열매, 오
 자(吾子, 나의 사랑하는 사람)와
 발음상 뜻이 통하는 상관어(相關
 語).

▶ 벽오동의 열매.



◀ 가지 끝에 모여난 벽오동 잎. 전북 익산시.
 1988. 7. 17

이 시에서는 벽오동의 열매를
 좋은 애인의 모습에 연관시키고
 있다. 이것은 그 나무가 풍겨주는
 어떤 상징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
 고 말의 장난에서 얻어졌을 뿐이
 다.

이백(李白)은 역시 벽오동을
 가을의 늙음에 이어 붙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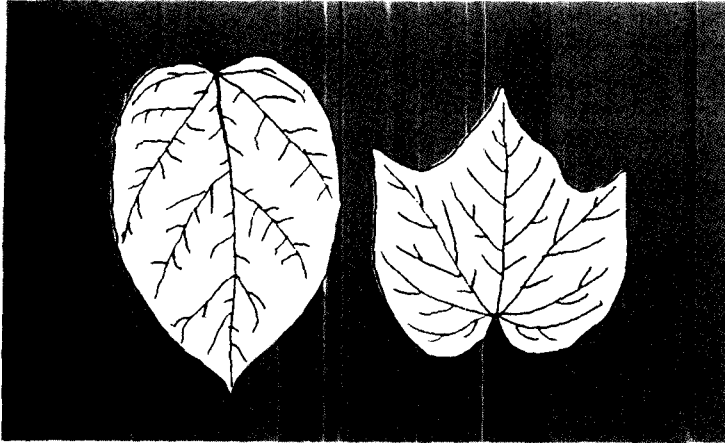
마을 집집마다 저녁 연기
 오르고

감귤 열매는 차갑게 운이 나며
 벽오동잎 가을에 떨어지고
 있다.

人煙寒橘柚 인연한골유
 秋色老梧桐 추색노오동

또 하나의 당시에 다음이 있다.

높은 누대에 눈이 쌓이고
 이끼는 난간의 손잡이에
 올랐다.



▲오동잎(좌) 벽오동 잎(우)

름이 정남(正南)에 올 때」라는 제목 아래 시가 나오는데 이때의 벽오동은 풍성한 이용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 노래는 위(衛)나라 문공(文公)이 제(齊)나라의 패자 환공(桓公)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다시 일으키고 초구(楚丘)에 새로운 도읍을 건설했을 때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소재로 한 내용이다. 정성이란 '별이 정남에 올 때는 궁궐을 지어서 좋다'는 말

고요한 뜰에 약초가 자라고
벽오동 저녁 노을에 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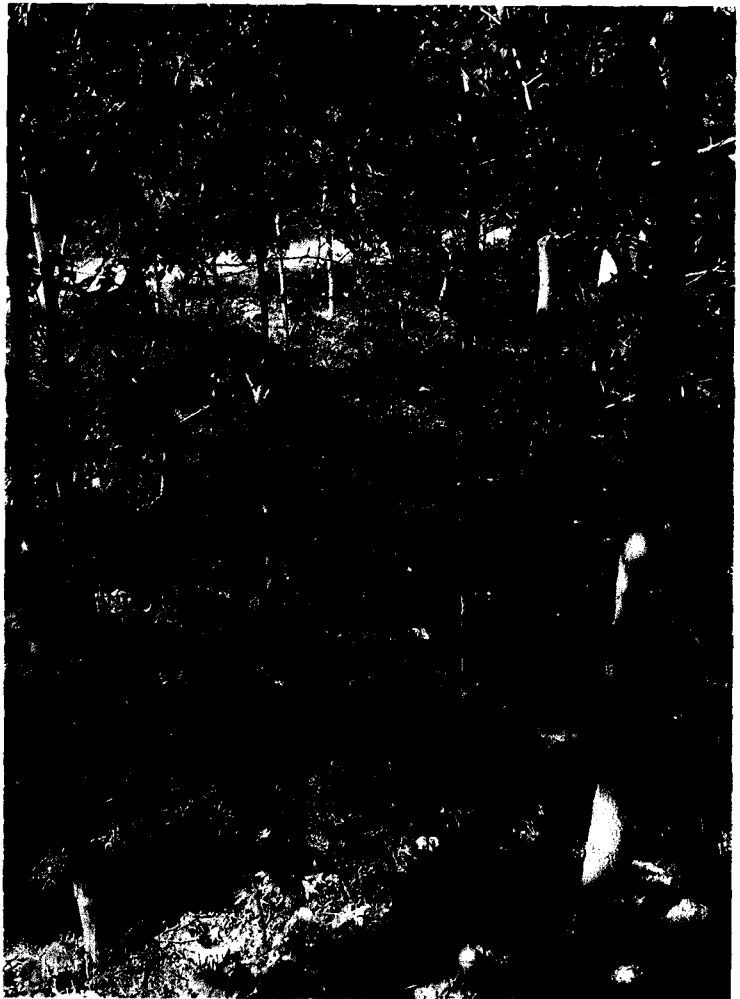
雪華滿高閣 설화만고각
笈色上勾欄 태색상구란
藥草空階靜 약초공계정
梧桐返照寒 오동반조한

〈참고〉 구란(勾欄 또는 句欄)
굽게 만든 난간. 반조(返照) 저녁
때의 햇빛

무언가 고요하고 흘러간 영화
같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상황인
데 어디까지나 높은 품격을 풍겨
서 우리의 심정을 깨끗한 골짜기
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러한 분위
기를 돕고 있는 벽오동이 돋보인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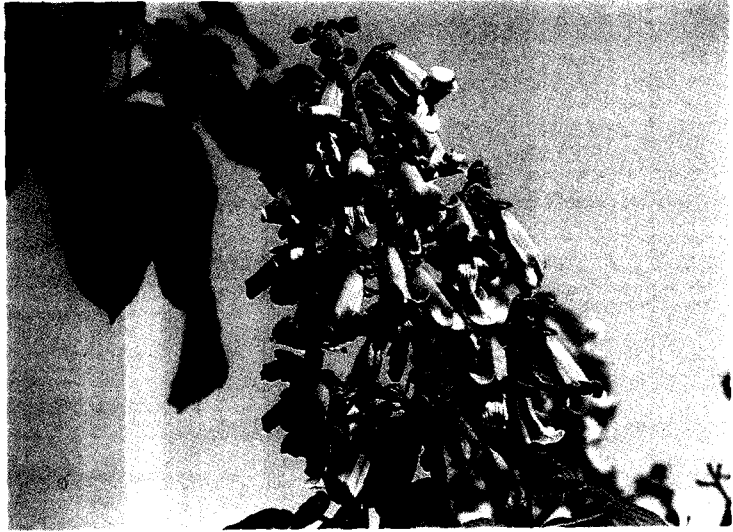
이러한 조금은 부정적인 방향
으로만 끝내 내다보는 심정에 반
하여 미래의 번성을 바라는 긍정
적인 효용이 없는 것도 아니다.
시경의 용풍에 「정성(定星, 별이

▼오동나무 밭. 경기도 광릉시철림, 1981.9



이 있다. 시의 내용이 다음과 같다.

정성이 남쪽에 올 때
 초구에 궁을 지었네
 해를 보아 방위를 재어
 초구에 궁을 지었네
 개암나무, 밤나무, 의나무
 벽오동, 개오동, 옷나무
 심으시고
 자라면 베어서 금슬을
 만드리라



▲참오동나무 꽃. 1989. 5. 5

〈참고〉 의나무 의(椅, 또는 이나무), 벽오동 동(桐), 개오동 자(梓), 개암나무 진(榛), 금(琴)은 일곱 줄의 악기, 슬(瑟)은 25줄의 악기.

이 노래의 내용은 수도를 새로 정하고 도시설계를 하는 가운데 쓸모있는 나무를 심어 도시 녹지를 만들어 풍치를 아름답게 하고 또 나중에 그 나무들이 자라면 끊어서 알맞은 용도로 이용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생각컨대 2천 5백년도 훨씬 넘는 오랜 예전에 이미 수도에 이러한 나무들을 심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개암나무와 밤나무는 열매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의나무, 벽오동, 개오동, 옷나무 등은 목재의 특수성을 알고 택한 것으로 짐작된다. 자라면 끊어서 현악기를 제조하는 원료로 쓰겠다는 것은 당시 음악이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음을 암시해 준다.

이처럼 벽오동나무가 미래를 위한 소중한 목재자원으로 인식되어 심어졌다는 것은 그 물질적 실용성에 무게를 두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또 시경 소아(小雅)『 많이 내린 이슬(湛露, 잠로)』에도 ‘벽오동나무, 의나무 그 열매 주렁렁 아름답구나’ 하는 대목이 있다. 시경에 나오는 오동(桐)을 벽오동으로 보지 않고 흔히 우리나라에 많은 그러한 오동나무로 보는 사람도 있으나 필자는 벽오동나무로 짐작한다.

3. 백거이 장한가의 벽오동

백거이(白居易)가 35살 날 때(서기 806년) 지은 장한가(長恨歌)는 당나라 현종(玄宗)과 양귀비의 사랑의 줄거리를 묘사한 것인데 영원의 사랑에 받친 슬픔의

노래이다. 그 중 벽오동이 등장하는 구절의 앞 뒤만 뽑아본다. 풀이를 앞세워 본다.

돌아와보니 못과 뜰은 옛적 그대로구나.

태액지(太液池)의 연꽃도 미양궁(未央宮)의 버들도 남았는데

연꽃은 그녀의 얼굴같고 버들은 그녀의 눈썹같구나 이 앞에 서니 눈물은 저절로 흐른다.

봄 바람에 복숭아 오얏꽃 필 때에도

가을비에 벽오동 잎이 젖을 때에도

서쪽, 남쪽 궁전에는 가을풀이 우거지고

계단을 메운 단풍잎 붉고 배나무발 제자는 백발로 되었구나

양귀비의 시녀도 많이
늪었구나

영화의 덧없음이 가락으로 되어 있다. 역시 여기에서도 가을비는 벽오동나무에 어울리는 것 같다.

歸來池苑皆依舊
太液芙蓉未央柳
芙蓉如面柳如眉
對此如何不淚垂
春風桃李花開日
秋雨梧桐葉落時
西宮南內多秋草
落葉滿階紅不掃
梨園弟子白髮新
椒房阿監青娥老

귀래지원개의구
태액부용미양류
부용여면류여미
대차여하불루수
춘풍도리화개일
추우오동엽락시
서궁남내다추초
낙엽만계홍불소
이원제자백발신
초방아감청아로

〈참고〉 태액지(太液池) : 당나라 시대의 태액지는 대명궁(大明宮) 안에 있었다.

미양궁(未央宮) : 장안에 있는 한나라 궁전의 이름

서궁남내(西宮南內) : 서쪽궁궐과 남쪽내리(內裏, 천자의 궁전)

이원제자(梨園弟子) : 현종은 음악에 정통하여 3백명의 자제를 궁 안으로 불러 이원(梨園)에 모으고 스스로 노래와 춤을 가르쳤다. 이것을 이원의 제자로 말했다.

초방(椒房) : 후비(后妃)가 거처하는 방

아감(阿監) : 궁녀를 다스리는 여관(女官)의 장(長)

청아(靑娥) : 젊고 아름다운 눈썹

지난날의 시문장가들이 왜 벽오동을 가을이란 계절이 이어 붙인 것인지 짐작키 어려운 점도 있으나 요컨대 오(吳)나라의 실(絲)을 촉(蜀)나라의 벽오동 악기에 걸고 높은 가을 하늘 아래에 타니 하늘의 흰구름도 부서진 채로 움직이지 않고 소상강의 두 여신(순임금의 비)도 슬퍼서 대숲에 눈물

을 뿌린다는 대목이 있는데 이때도 가을과 슬픈 사연이 묶여져 있다. 어디까지나 수심을 자아내게 하는 광경이다. 말 없이 혼자서 서쪽 누대에 오르니(無言獨上西樓) 초생달은 갈구리와 같고(月如鉤) 쓸쓸하게 서 있는 오동나무 깊은 뜰 안에는 맑은 가을을 담고 있다(寂寞梧桐深院鎖清秋) 하는 등등 우리는 벽오동에 공통되는 심정의 생리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것은 쓸쓸함이라기보다는 성숙이요, 완성에 더 가깝다.

4. 무덤가에 심어진 벽오동 나무

예전 정국에 있어서는 묘지 주변에 벽오동나무를 심었던 모양이다. 왜 묘지에 벽오동나무를 심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알아본 적은 없으나 아마 이 나무가 깨끗

▼참오동나무의 열매. 독일 프라이부르크 1988. 7



한 나무이고 오래 살고 상서로운 봉황새가 깃들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옮겨감을 잘 알려 주는 나무이고 보면 벽오동나무를 심을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묘지 안의 영혼이 좋아할 수 있는 속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느껴지게도 그러하다. 그 뿐만이 아니라 큰 잎으로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을 부채질하고 겨울에는 잎을 떨어뜨려서 따뜻한 햇볕을 땅위로 내려 보내기에 더욱 그러하다.

벽오동나무를 묘지에 심었다는 내용을 우리는 공작동남비(孔雀東南飛)라는 중국의 긴 고전시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시의 제목은 다르게 『초중경(焦仲卿)의 처(妻)』라고도 한다. 3세기의 초 후한(後漢)의 말경 중국의 안휘성지방에 살고 있던 하급공무원 초중경의 처였던 유란지(劉蘭芝)가 시어머니로부터 쫓겨난 일이 있다. 유란지는 친정으로 피신을 해서 지냈고 재가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빠되는 사람이 재가할 것을 강요하다시피 했는데 그는 전 남편의 사랑을 생각다 못해 드디어 물에 몸을 던져 한 생애의 끝을 맺고 만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남편도 슬픔을 이겨낼 수 없어서 뜰 안에서 있는 나무에 목을 매어 한 평생을 끝내고 만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사연을 알고 지은 시가 바로 공작동남비라는 고전시이다. 이 시는



▲참오동나무의 꽃과 잎술. 1990. 5. 25

350줄을 넘는 장시로서 이곳에는 도저히 그것을 소개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시의 내용이 우리의 가족관계와 가정생활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구석구석이 많아서 또 그 시가 너무나도 유명하기에 몇 줄 음미해 보고자 하다. 한자로 된 원문은 생략하고 군데군데를 우리 말로 옮겨본다.

공작이 동남쪽으로 날고 있다.
5리를 날면 한 번 되돌아
배회하는 공작새이다(서곡)
열 세살에 비단을 잘 짜고
열 넷에 옷을 마련했고
열 다섯에 비파를 탔으며
열 여섯에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을 암송하고
열 일곱에 당신의 처로 되었다.
마음 속에는 항상 고통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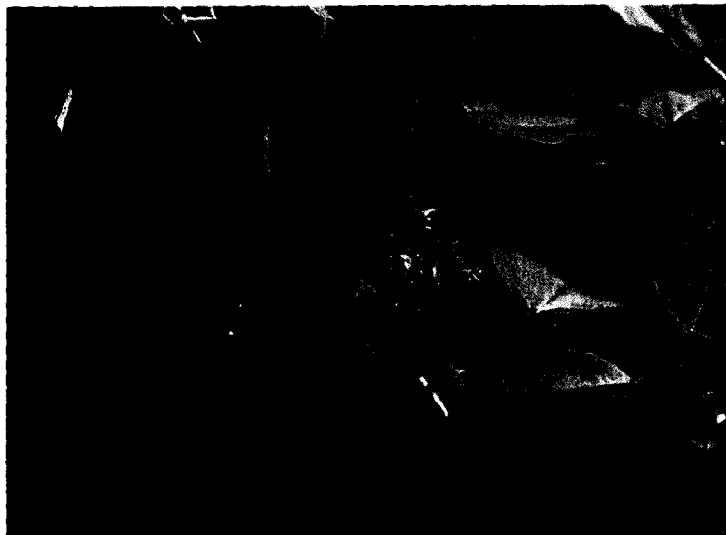
당신은 관리로 되어
하는 일에만 충실했다.
천첩(賤妾)은 빈 방만 지키고
서로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다.
새벽 닭소리에 베틀에 앉고
한 밤중까지 설 사이가 없었다.
사흘에 5필의 비단을 짠데도
시어머니는 늣다고 야단이다.
이 집의 떠느리되기 어려워
그 혹사를 이겨낼 수 없어
이 집을 떠나야겠다.
이 뜻을 전해들은 초중경
삼가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저가 분에 넘치는 처를 얻어
베개와 이불을 함께 하고
백년해로하고자 하는데
결혼해서 아직 2~3년의 세월
여자의 행실에 허물이 없는데
어머니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머니 아들에 말하기를
 왜 버르장머리 없는 말짓인가
 그 여자 예절없고
 거동이 뻔뻔스럽다
 이웃집에 좋은 처녀 있어
 그 이름 진나부
 아름답기 짝이 없다.
 내 며느리로 맞으리라

친정으로 쫓겨난 유난지는 친정 어머니, 오빠의 즐기찬 재가의 권유를 받는다. 이것을 여러차례 거절했으나 어머니는 날을 받아 결혼식을 강행하고자 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남편 초중경은 유난지를 사랑하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뜻을 고백한다.

오늘 찬 바람이 강하고
 뜰의 난초에는 서리가
 내렸는데
 이 자식 오늘 저 세상으로 가서
 어머니를 홀로 남기겠나이다.
 이것을 원망하지 마시고
 남산의 돌처럼 오래 오래
 사시고
 건강하시고 허리굽는 일이
 없기 바라나이다.

드디어 유난지의 재가하는 혼례식의 날이 다가왔다. 전날밤 유난지는 치마를 걸어올리고 비단신을 벗어 던지고 못에 몸을 던졌다. 이 말을 들은 초중경은 뜰 안을 배회하다가 큰 나무 동남쪽 가지에 몸을 달았다. 이 시의 마지막 줄이 다음과 같이 이어지고



▲오동나무의 앞. 법주사 주변. 1983. 5. 20

있다.

양가 두 사람을 합장하기로 하여
 화산(華山)의 산기슭에 묻다.
 동서방향에 소나무와
 측백나무를 심고
 좌우에 벽오동나무를 심었다.
 가지가 서로 맞대어 꼬이고
 잎과 잎은 섞여서 무성하고
 그 안에 한 쌍의 새가 살았는데
 그 이름이 원앙이라
 머리를 들어 마주앉아
 울고 울어
 새벽까지 이르니
 길가던 사람은 서서 듣고
 과부는 일어나서 방황을 한다.
 바라건데 후세 사람들이여
 이 사연의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라.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는

현대에 있어서도 없는 일이 아니다. 결혼해서 다정하게 사는 부부라면 시어머니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또 자식과 며느리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한량없는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 중국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좌우로 심어진 벽오동나무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원앙새와 함께 무덤 속의 넋을 잘 위로해 줄 것으로 생각한다. 원앙은 그 두 넋의 화신일지도 모른다.